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eck Hopelessness Scale for Korean Sign Language (K-BHS-SL)

Dawon Jeong<sup>1</sup> Soontaeg Hwang<sup>1\*</sup> Hyeseon Jo<sup>1</sup> Hyejeong Jeong<sup>1</sup> Mincheol Shin<sup>1</sup> Sanghwang Hon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sup>2</sup>Department of Education, J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inju,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Korean Beck Hopelessness Scale-Sign Language version (K-BHS-SL), and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scale. The researchers reviewed and revised the original items to create the text version of the K-BHS-SL to reflect the Deaf-culture and expression of Korean Sign Language (KSL). Next we translated the revised items into KSL and created the video version of the scale. Data were collected from deaf persons ( $n=240$ ) and bilinguals in Korean and KSL ( $n=54$ ). The K-BHS-SL exhibit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Additionally,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K-BHS-SL and sign language versions of other inventories were significant. The agreement between the K-BHS-SL and K-BHS, which was examined by bilingual examiners, was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BHS-SL is a reliable and valid scale for evaluating hopelessness and predicting suicidal ideation in deaf persons.

**Keywords:** K-BHS, K-BHS-SL, Deaf, Korean sign language, scale development

절망감은 앞으로 희망이 없고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는 느낌이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존재하는 상태로, 반복되는 좌절 경험이나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 인해 형성된 부적응적 인지과정과 관련이 있다(Beck, 1986). 특히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 사건의 원인을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자신이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여 절망감을 경험할 수 있다(Abela, 2002).

또한 절망감은 우울과 함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rown, Beck, Steer, & Grisham, 2000; Clark, Beck, & Stewart 1990). Beck, Steer, Beck과 Newman(1993)의 연구에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절망감 수준이 높을 때 자살사고 또는 자살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고, 절망감이 우울감보다 자살 사고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ck, Steer과 Brown(1993)의 연구에서는 자살 시도 과거력과 함께 절망감 척도의 상승이 자살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절망감이 우울 관련 장애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며, 특히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임을 말해준다.

절망감의 측정에는 Beck, Weissman, Lester과 Trexler(1974)가 개발한 벡 절망척도(Beck Hopelessness Scale, BHS)가 널리 사용된다. BHS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비관주의)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우울하거나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개인의 절망감과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총 20개의 문항 중 9개의 문항은 미래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척도에서 추출된 것이며 11개의 문항은 절망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주로 진술하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여러 측면이 반영된 문항에서 선별되었다. BHS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자살 사고 및 자살 행동을 예측하는 유용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Beck, Steer, & Brown, 1993; Saltz & Marsh, 1990). 뿐만 아니라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물질남용, 조현병 등의 임상집단 집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Correspondence to Soontaeg Hw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Korea; E-mail: hstpsy@chungbuk.ac.kr

Received Jan 24, 2017; Revised Jun 4, 2017; Accepted Jul 10, 2017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HI16C0442).

유용성과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검사 중 하나이다(Aloba, Olabisi, Ajao, & Aloba, 2017; Beck, Steer, & Shaw, 1984; Pompili et al., 2011; Steed, 2001).

최근 국내에서는 Kim, Lee, Hwang과 Hong(2015c)에 의해 한국판 벡 절망척도(Korean version of the Beck Hopelessness Scale, K-BHS)가 표준화 되었다. K-BHS는 정상 집단을 대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또한 변별타당도 검증 결과 ADHD 증상을 평가하는 척도보다 우울 및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K-BHS가 개인의 절망 수준을 양적으로 측정하는데 신뢰로운 평가 도구임이 검증되었다(Kim et al., 2015).

한편,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 신체 기능의 제한으로 인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의 제약과 직업선택의 어려움, 역할 상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차별이나 소외 등을 경험한다(Honey, Emerson, & Llewellyn, 2011; Jeon, 2010).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신체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심한 우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고,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oi, Lee, & Eom, 2006; Kim, 2010; Oh & Paik, 2003). 특히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워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된다(Desrosiers, Noreau, Rochette, Bravo, & Boutin, 2002). 또한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형성하거나 자아존중감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취약성들은 우울과 같은 부정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Livneh, Lott, & Antonak, 2004).

여러 연구에서 만성적인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Lenze 등(2001)의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장애와 우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Chen et al., 2012; Turner & Noh, 1988)에서는 신체적 건강문제와 장애가 우울의 발생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고, 장애로 인한 고통이 클수록 우울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생활사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및 환경적 요인이 우울과 자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좌절과 절망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우울증이나 자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특히 농인은 신체장애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문제에서 비롯된 일상생활에서의 적응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농인은 수어(한국수화언어, Korean Sign Language)를 사용하는 사람이자 농문화에 대한 이해와 농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진 이들과의 연대

를 통해 ‘농인사회’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Markowicz & Woodward, 1978; Singleton & Tittle, 2000). 이들은 다른 신체·정신 장애인들과 달리 외견상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어 사회적·직업적 활동에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작용의 기본 도구인 언어 및 청각의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들은 제한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음성언어 중심의 환경에서 농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어렵고, 청인(hearing person)이 TV나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또한 어려워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곤란을 겪고 있다(Shin, Lee, & Son, 2009).

청각·언어장애에서 비롯된 환경적 요인은 농인의 정서 문제나 적응 문제를 유발하여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So, 2004). 뿐만 아니라 농인의 삶에 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농인들이 초기 발달과정에서부터 경험하는 언어적·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과 청인 문화에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받지 못하여 느끼는 소외감과 고립감 등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ang & Jung, 2010). 농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 특히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으로 미루어보아 농인들의 우울증의 발병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자살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나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심리평가는 신체장애가 없는 사람들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 통상적인 문자판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것처럼 장애의 유형에 따라 심리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하 “농인”으로 표기함)의 경우에도 문자판 심리검사를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시각 기능은 원활하지만 낮은 국어 사용 능력과 문해력으로 인해 문자로 제시되는 방식의 자기보고형 검사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농인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어는 문자언어와는 다른 어휘와 어법, 문법체계를 가진 독립적인 언어이다(Singleton & Tittle, 2000). 언어 발달 시기 이전에 청각을 상실한 농인들은 수어를 모국어로, 자국의 문자언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들(이하 “청인”으로 표기함)의 언어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다(Gallaudet, 1997).

농인의 문자 독해력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Hermans, Knoors,

Ormel, & Verhoeven, 2008; Traxler, 2000; Wauters, van Bon, & Tellings, 2006)에서 농인들이 자신의 학력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8-9세 수준의 문자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2014)에서 실시한 농인의 문해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농인의 독해 점수가 20점 만점에 9.6점으로 청인 중·고등학생의 평균 점수인 16.7점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인들에게는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농인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2013)'에서는 농인의 수어와 국어에 대한 선호도를 함께 조사한 결과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대답이 77명, 국어사용이 더 편하다는 대답이 26명으로 나타나 농인들은 수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인들은 주로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일반적으로 문해력이 낮고 문자보다 수어를 더 편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문자로 된 심리검사를 통해 내적이고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농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를 매체로 사용하는 수어판 심리검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수어판 심리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외국에서는 임상장면에서 기분장애의 평가에 사용되는 도구를 수어판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는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Item Scale (GAD-7), 그리고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 (WSAS) 3개의 검사를 수어판으로 개발하였다(Rogers, Young, Lovell, Campbell, Scott, & Kendal, 2012). 또한 스페인에서는 Estrada, Delgado, 그리고 Beyebach(2010)가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를 수어판으로 제작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수어판 검사가 농인의 우울 증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검사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수어판 Spanish BDI-II로 평가한 농인의 우울 점수와 기준 집단의 점수를 비교하여 농인의 우울 수준이 청인에 비해 높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수어판 심리검사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농인의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농인들의 기분장애 및 자살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 농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어판 심리검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핵심적 증상이자 자살 위험성을 예측

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절망감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한국판 벡 절망감척도(Kim et al., 2015c)의 수어판을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 방 법

### 한국판 벡 절망척도 수어판의 개발

본 연구는 Kim, Lee, Hwang과 Hong(2015a, 2015b, 2015c)이 표준화된 한국판 벡 우울척도 2판(Korean version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K-BDI-II), 한국판 벡 불안척도(Korean version of the Beck Anxiety Inventory, K-BAI), 한국판 벡 절망척도(Korean version of the Beck Hopelessness Scale, K-BHS)를 수어판으로 제작하여 타당화하기 위한 수어판 심리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척도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심리주식회사와 검사 원저자로부터 저작권 및 연구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문항을 수어로 번역하여 수어판 심리검사를 개발하였다.

Korean Beck Hopelessness Scale-Sign Language Version (K-BHS-SL) 개발 단계에서 농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표현을 반영한 수어 문항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최근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문화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농수화(자연수화)<sup>1)</sup>가 표준수어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어 표준화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Kang, Yoon, Park, & Choi, 2016). 이로 인해 농인들 사이에서도 지역이나 연령, 출신 학교에 따라 사용하는 수화 표현(sign)이 달라 지역 및 연령대에 따라 사용하는 수어 또는 수어사용 능력에 따른 이해 정도에 차이가 있다. 수어 문항 개발과정에서 이러한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어문항 개발 이전 단계부터 수화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원문항을 가장 적합한 수어로 번역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문항 개발 과정에서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는 청각장애인 복지관 관계자로부터 경력 10년 이상의 수화통역사, 한국농아인협회 또는 농아인 종교기관(농아인 선교회, 농아인 교회)에 재직 중인 사람들 중에서 농수화와 농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Table 1).

먼저 수어와 국어는 다른 문법 구조와 어휘를 가진 독립적인 언어라는 점을 감안하여 K-BHS 원저자 중 1명과 청각장애인통역사 1명(경력 8년) 및 수화통역사 1명(경력 20년)이 원문항을 수어의 문

1) 농수화(자연수화)는 농인들 사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어 사용되는 수어로 농인의 사고와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는 독자적인 언어체계이다(Choi & Ahn 2003). 이는 청인들이 한국어 문법과 어순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는 국어대응식 수화와 구분된다.

**Table 1.** Experts of Participating in SL Item Development

Procedure	Position/Qualification (N)	Note
Item review	PhD, Clinical psychologist (1)	1 of the authors of the K-BHS
	Licensed Sign language interpreter (2)	1 Deaf 1 Hearing
	Licensed Sign language interpreter (2)	1 Deaf 1 CODA*
1st Backtranslation	Licensed Sign language interpreter (2)	1 Deaf 1 CODA
2nd Backtranslation	Licensed Sign language interpreter (2)	1 Deaf 1 CODA
1st Feedback	Priest (Christian or Catholic church for deaf) (2)	1 CODA 1 Deaf
	Executive of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1)	1 Deaf
2nd Feedback	Executive of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2)	1 Deaf 1 Hearing

Note. CODA = Children of Deaf Adult.

법 및 표현에 맞게 수정하여 1차 수어-문자판을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인인 수화통역사가 원문항의 내용을 청각장애인통역사에게 수어로 전달하면 청각장애인통역사가 이를 농수화(자연수화)로 번역하였다. 농수화로 번역된 문항에 대해서 청인인 수화통역사와 다시 논의하여 연령이나 지역에 따라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문법 수화의 요소를 혼용한 혼합수화로 사용하여 대다수의 농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하였다.

K-BHS 문항은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다’와 같이 평서문으로 제시된다. 평서문으로 제시되는 질문-응답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농인들은 이를 질문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농인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조언을 반영하여 모든 문항을 의문문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주어, 시제 등에서 맥락상 이해가 가능한 내용은 흔히 생략되는 한국어와 달리 수어에서는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시제를 표현한다(Won et al., 2013). 이러한 수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문항에 ‘당신은’이라는 주어와 ‘지난 일주일 간’이라는 시간 표현을 삽입하여 ‘당신은 지난 일주일 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대했습니까?’와 같이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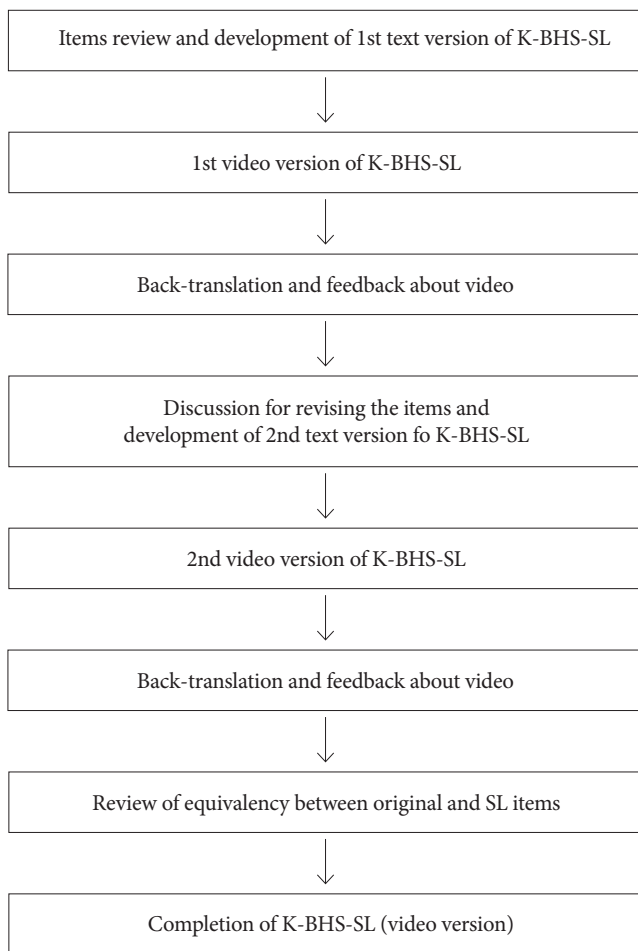
1차 수어-문자판을 바탕으로 1차 수어판 검사 동영상 제작하였다. 검사 동영상 촬영 시 수어-문자판 제작에 참여한 수화통역사와 검사 원저자 중 1인이 함께 참석하여 수어로 번역된 문항과 원문항의 의미가 일치하는지를 재차 검토하였다.

1차 수어 검사 동영상 제작 후, 수어 문항을 국어로 역번역하여 수어 번역이 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역번역에는 문항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통역사 1명(경력 5년)과 수화통역과 강

사로 재직 중인 수화통역사 1명(경력 20년)이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농아인협회 임원 1명과 농인대상 종교 단체의 성직자 2명으로부터 검사 동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수정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K-BHS의 원저자와 1차 역번역 문항을 원문항과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언어 표현의 차이는 있었으나 문항 내용상 차이는 없으므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의 피드백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문항에서 적절하지 않은 수어 어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1차 수어-문자판에서는 ‘나의 앞날은 어두워 보인다’에서 ‘앞날이 어둡다’라는 국어의 관용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당신은 지난 일주일간 앞날이 캄캄하다(어둡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수어와 국어 어휘의 의미 범위가 달라서 농인들에게는 ‘어둡다’는 단어가 ‘앞으로 희망이 없고 막막하다’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Won et al., 2013). 어휘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해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당신은 지난 1주일간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로 수정하였다. 전문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통역사 및 청인 수화통역사와 1차 수어-문자판 문항을 재검토하여 농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문항과 원문항이 내용적으로 일치하는지 K-BHS 원저자와 논의하여 2차 수어-문자판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수어판 검사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2차 수어판 검사 동영상에 대해서도 청각장애인통역사 1명과 수화통역사 1명에게 의뢰하여 2차 역번역을 실시하고 한국농아인협회 임원 2명으로부터 수어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2차 역번역 문항과 2차 수어-문자판의 문항 내용을 비교하여 수어로 번역된 문항이 원문항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ure 1.** Development process of K-BHS-SL.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Deaf

		deaf(N = 240)		K-BHS-SL score	
		n	%	M	SD
Total		240	100	7.39	3.80
Sex	Male	88	36.70	7.58	3.81
	Female	152	63.30	7.26	3.79
Age	18-29	16	6.67	6.81	4.29
	30-39	46	19.17	6.30	4.06
	40-49	52	21.67	6.79	3.47
	50-59	82	34.17	7.91	3.57
	over 60 years	44	18.33	8.39	3.82
Degree of disability	1st	49	20.42		
	2nd	180	75.00		
	3rd	9	3.75		
	4th	2	0.83		
Level of education	Uneducated	30	12.50		
	School for the deaf	156	65.00		
	High school	26	10.83		
	University	28	11.67		

2차 수어판 검사 동영상에 대해 번역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문항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문항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검사 실시와 관련된 지시문, 자막, 보기 제시 방식 등을 수정하여 K-BHS-SL 제작을 완료하였다(Figure 1).

### 연구 참가자

본 연구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은 만 18세 이상의 농인과 이중언어자 29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농인은 244명이었으며 이중 24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농인 참가자 중 남자는 88명(36.7%), 여자는 152명(63.3%)이고, 평균 연령은 만 48.91세(SD=12.51)이었으며, 만 18세부터 82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가 표집되었다. 이들 중 30명에게 평균 3주 간격을 두고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수어를 주요 의사소통 방식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후천적 청각·언어장애인이거나 노인성 난청인 등 수어 숙련도가 낮은 사람은 참가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농인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또한 K-BHS-SL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농인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이중언어자 54명을 표집하였다. 이중언어자 참가자 중 남자는 10명(18.52%), 여자는 44명(81.48%)이고, 평균 연령은 만 36.59세(SD=9.92)이다.

### 자료수집 절차

전국의 농아인협회 지부 및 수화통역센터, 농아인복지관, 농인 종교 공동체(농인 교회, 가톨릭 선교회, 불교 모임 등)에 연구 안내문

및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에 연구자가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가자에게는 수어로 제작한 연구 설명 동영상 또는 수화 통역사를 통해 연구의 목적 및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인구통계학적 설문지를 작성한 후 K-BHS-SL을 실시하였고, 타당도 검증을 위해 K-BDI-II-SL과 K-BAI-SL을 함께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노트북 또는 스크린을 통해 검사 동영상을 보고 직접 답안지를 작성하였고, 검사 시간은 약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중 언어자는 K-BHS-SL을 먼저 실시하고 K-BHS 원판 검사를 나중에 실시하였다. K-BHS-SL 실시 당일 원판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참가자에게 1-2일 내에 원판 검사지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우편으로 검사지를 회수하였다.

### 측정도구

한국판 벡 절망척도(Korean version of the Beck Hopelessness

Scale, K-BHS) 및 한국수어판 벡 절망척도(Korean-Beck

Hopelessness Scale-Sign Language version, K-BHS-SL)

K-BHS는 Beck Hopelessness Scale(Beck, Weissman, Lester, & Trexler, 1974)을 Kim, Lee, Hwang과 Hong(2015c)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검사이다. K-BHS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예' 또는 '아니오'로 평가한다. K-BHS는 총 20문항으로, 긍정 응답 시 점수가 상승하는 문항 11개와 부정 응답 시 점수가 상승하는 문항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K-BHS 표준화 연구(Kim et al., 2015)에서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85였다. 본 연구에서는 K-BHS를 수어판으로 개발하여 함께 사용하였다. K-BHS-SL은 총 20문항으로 동영상으로 제작되었고 검사 소요시간은 약 15분이다.

한국수어판 벡 우울척도 2판(Korean-Beck Depression

Inventory-II-Sign Language version, K-BDI-II-SL)

K-BDI-II-SL(Jo et al., In review)은 Kim, Lee, Hwang과 Hong(2015b)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벡 우울척도 2판(Korean version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K-BDI-II)를 수어판으로 제작한 검사이다. K-BDI-II-SL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자신의 우울증상을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수어 동영상으로 제작된 검사로 슬픔, 죄책감, 자살사고, 즐거움 상실 등 주요우울증의 증상을 묻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검자는 검사 동영상을 보고 지난 2주일간 자신의 기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0점)'-'심하게 그렇다(3점)'로 평정한다. K-BAI 표준화 연구(Kim et

al., 2015b)에서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한국수어판 벡 불안척도(Korean-Beck Anxiety Inventory-Sign Language version, K-BAI-SL)

K-BAI-SL(Jeong et al., In review)은 Kim, Lee, Hwang과 Hong(2015a)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K-BAI를 수어판으로 제작한 검사이다. K-BAI-SL은 농인이 자신의 불안 증상의 심각도를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수어 동영상으로 제작된 검사이다. 신체 증상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울증상과 구별되는 불안 증상의 심각도를 잘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문항은 총 21개이며 수검자는 검사 동영상을 보고 지난 1주일간의 증상을 '전혀 그렇지 않다(0점)'-'심하게 그렇다'(3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K-BDI-II 표준화 연구(Kim et al., 2015a)에서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92였다.

### 자료분석

K-BHS-SL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3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하고, 두 시행 점수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K-BHS-SL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BHS-SL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다른 수화판 척도를 함께 실시하고 검사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고 K-BHS-SL과 원판 검사의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K-BHS-SL의 신뢰도

244명의 농인에게 실시한 K-BHS-SL 20개 문항의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를 검토하였다(Table 3). K-BHS-SL 각 문항의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은 .11-.41 범위였으며,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3으로 양호하였다. 이 결과는 K-BHS-SL이 동질적인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이며, 척도가 측정하는 내용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를 보면, 유일하게 4번 문항을 제거할 경우 내적합치도가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이 .01(.73 → .74)로 미미하였다.

K-BHS-SL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30명에게 평균 3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시행 간의 상관 분석결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 = .78$  ( $p < .001$ )으로 나타났다.

**Table 3.** Internal Consistency of K-BHS-SL

	M	S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Chronbach's Alpha
1	.38	.49	.23	.72	.73
2	.28	.45	.28	.72	
3	.31	.46	.35	.71	
4	.53	.50	.11	.74	
5	.54	.50	.17	.73	
6	.36	.48	.32	.72	
7	.19	.40	.35	.72	
8	.58	.50	.27	.72	
9	.20	.40	.42	.71	
10	.40	.50	.24	.72	
11	.42	.50	.33	.71	
12	.37	.49	.25	.72	
13	.49	.50	.30	.72	
14	.30	.46	.39	.71	
15	.50	.50	.38	.71	
16	.22	.42	.41	.71	
17	.33	.47	.36	.71	
18	.43	.50	.28	.72	
19	.30	.46	.18	.73	
20	.27	.44	.31	.72	

**K-BHS-SL의 요인구조**

K-BHS-SL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20개의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실시에 앞서 모형의 적합성 여부 및 변인 간 상관행렬을 살펴보기 위하여 Kaiser-Meyer-Olkin (KMO) 측정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를 확인한 결과, KMO는 .79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chi-square = 992.52,  $p < .001$ ). 요인간 상관이 있음을 가정하는 직각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고유값, 스크리 도표 결과 및 요인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2개의 요인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요인 모형은 전체 분산의 33.8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요인은 전체 분산의 18.22%를 설명하고 부정적 미래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요인은 전체 분산의 15.63%를 설명하고 긍정적 미래에 대한 의심과 관련된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K-BHS-SL

Item	Factor	
	1	2
2	0.43	0.05
4	0.32	-0.18
7	0.49	0.09
9	0.51	0.15
11	0.51	0
12	0.49	-0.11
14	0.55	0.07
16	0.63	0.03
17	0.65	-0.08
18	0.5	-0.05
20	0.5	0
1	-0.03	0.49
3	0.13	0.53
5	-0.03	0.34
6	0.04	0.56
8	0.03	0.43
10	-0.07	0.53
13	0.01	0.55
15	0.04	0.65
19	-0.04	0.42
Eigenvalue	3.65	3.13
Variance (%)	18.22	15.63

**Table 5.** Comparison between K-BHS-SL and K-BHS( $n = 54$ )

	M	SD	r	t	d
K-BHS-SL	3.85	3.36	.79***	2.39*	.21
K-BHS	3.11	3.56			

\*\*\* $p < .001$ . \*\* $p < .01$ . \* $p < .05$ .

**K-BHS-SL의 타당도****구인타당도**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K-BHS-SL과 임상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다른 구성개념인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는 수화판 척도들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K-BHS-SL은 K-BDI-II-SL과 .36 ( $p < .01$ )의 유의한 상관을 보여 절망감과 관련성이 높은 우울감이 K-BHS-SL과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K-BAI-SL과의 상관은 .24 (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나 절망감과 개념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우울감에 비해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K-BHS-SL과 K-BHS 원판의 일치도**

K-BHS-SL과 원판 검사인 K-BHS 간의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중언어자 54명에게 K-BHS-SL과 K-BHS를 차례대로 실시하고, 두

검사의 상관관계와 평균차이를 살펴보았다(Table 5). 상관분석 결과 두 검사의 상관은  $r = .79$  ( $p < .001$ )로 유의하게 나타나 원판 검사와 수어판 검사가 관련성이 높은 검사임을 확인하였다. 대응표본  $t$ -검증을 통해 두 검사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동일한 대상에게 실시한 K-BHS-SL과 K-BHS의 평균 차이는  $t(53) = 2.39$ ,  $p < .05$ 로 유의하였으나, Cohen's  $d$ 를 산출하여 두 검사 간 효과 크기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d = .21$ 로 작게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낮은 국어 능력 및 문해력으로 인해 자기보고형 심리검사 사용하기 어려운 농인들이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백 절망척도의 수어판(Korean version of the Beck Hopelessness Scale for Korean Sign Language, K-BHS-SL)을 개발하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연령, 교육수준 등에 관계없이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농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번역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수어로 번역하여 수어 문항을 만드는 과정은 수어의 언어 특성상 영상을 보고 응답하는 형태로 제작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외국어로 된 검사를 국어로 번안하는 절차와 유사하다. 수어 역시 하나의 독립적 언어로서 수어의 문법과 어휘 체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 수어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문항을 수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농인의 문화적 특성이자 수어의 언어적 특성 중 하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분화된 활동으로 표현하고 맥락적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명사인 단어가 수어에서는 동사로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Won et al., 2013). 또한 농인들은 청각장애로 인해 정보 획득의 경로가 제한되어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과 사회적 상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Jang & Jung, 2010). 따라서 한국어로 된 문항을 수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문법적 구조에 맞추어 동일한 어휘로 번역하는 것보다 농인 문화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문항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예시 등을 사용하여 의미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원문항을 수어로 번역하기 이전에 청인인 수화통역사, 청각장애인통역사 그리고 검사의 원저자가 함께 여러 차례 수어문항과 원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농인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수어를 적용하여 수어판 문항을 완성하였다. 그 결과 실제 표집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및 연령대의 대상자들에게 검사를 실시하면

서 수화 통역사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검사 진행이 가능하였고, 농인과 중급이상의 수어사용이 가능한 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수어 활용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본 문항을 이해할 수 있는지, 수어를 모국어로 하는 모든 농인에게서 활용 가능한 검사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수어 교육 여부나 수어 사용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검사 문항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K-BHS-SL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 내적합치도,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를 검토하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K-BHS-SL의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었고, 내적 합치도는  $\alpha = .73$ 으로 원판인 K-BHS(Kim et al., 2015) 타당화 연구에서의  $\alpha = .85$ 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K-BHS-SL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K-BHS의 타당화 연구(Kim et al., 2015)에서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의 범위가 .20-.58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본 연구에서 확인한 문항-총점 상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20 미만의 문항은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 문항 제거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문항-총점 상관이 .10대인 3개의 문항을 포함하는 것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문항을 제거하여도 내적 합치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원판에서는 해당 문항이 절망감의 구성개념을 충분히 반영하는 문항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원칙도의 문항 구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일단은 해당 문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농인 참가자 29명에게 평균 3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재검사를 확인한 결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또한 양호하게 나타나, K-BHS-SL이 절망감을 시간 변화에 따라 안정적으로 측정하는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K-BHS-SL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K-BHS 표준화 연구(Kim et al., 2015)에서 1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r = .86$ ) 보다 약간 낮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검사-재검사 시행 간격이 표준화 연구보다 더 길었던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시행 간격을 1-2주 이내로 조정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HS-SL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BHS 표준화 연구(Kim et al., 2015)에서 3요인 모델(미래에 대한 낙관주의, 포기하는 것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 또는 계획)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K-BHS-SL은 부정적 미래에 대한 믿음 및 긍정적 미래에 대한 의심으로 구성된 2요인 모델로 확인되었다. 그리



나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을 확인한 결과 요인 1의 11개의 문항(2, 4, 7, 9, 11, 12, 14, 16, 17, 18, 20)은 '예'로 응답하였을 때 채점되는 부정적 진술문으로 구성되었고 요인 2의 9개 문항(1, 3, 5, 6, 8, 10, 13, 15, 19)은 '아니오'로 응답하였을 때 채점되는 긍정적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추출된 2개의 요인은 문항에 대한 진술 방향이 반영된 것이며 각 요인이 서로 다른 이론적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K-BHS-SL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단일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K-BHS-SL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는 수화판 심리검사들과의 상관을 구하여 검사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고, 수어와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중언어자에게 수어판 검사와 원판 검사를 차례로 실시하여 원판 검사와의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K-BHS-SL과 K-BDI-II-SL 및 K-BAI-SL의 상관을 각각 살펴보면, K-BHS-SL은 두 수화판 척도와 모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나, 불안을 측정하는 K-BAI-SL 보다 우울을 측정하는 K-BDI-II-SL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는 우울, 불안 두 변인 중 보다 관련이 높은 개념인 우울과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관련이 낮은 변인인 불안과의 상관보다 높게 나온 이 결과는 K-BHS-SL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말해준다. 본 연구결과는 절망감이 우울증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우울감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Lynch, Cheavens, Morse, & Rosenthal, 2004), 이후 우울증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Alford, Lester, Patel, Buchanan, & Giunta, 1995).

K-BHS-SL과 K-BHS가 측정하는 내용이 동일한 검사인지 검증하기 위해 이중언어자에게 두 검사를 모두 실시한 후 상관분석을 통해 두 검사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K-BHS-SL과 K-BHS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검사가 관련성이 높은 검사임을 의미하며, K-BHS를 수정하여 수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항의 의미가 수어문항에 잘 반영되어 수검자가 두 검사의 문항을 서로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두 검사의 총점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두 검사 간 평균점수 차이가 유의하여 평균 차이에 대한 효과 크기를 확인한 결과 Cohen's  $d = .21$ 로 나타났다. Cohen(1992)에 따르면 .19 이하의 효과크기는 무시할 만한 효과크기, .20-.49는 작은 효과크기, .50-.79는 중간 효과크기, .80 이상일 때 큰 효과크기로 보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중 언어자에게 실시한 두 검사의 차이는 작은 효과크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 검사 간의 평균 차이가 검사의 측정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수어판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화 통역사 및 K-BHS

원저자와 여러 차례 원문항과 수어문항을 대조하여 두 척도의 문항 내용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두 척도의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수어와 한국어가 독립적인 언어라는 점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즉 수어 문항의 어법 및 문법이 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수검자가 수어판 검사와 원판 검사에서 각각 다른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인 관련기관 종사자 중 농인과 수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이중언어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수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하더라도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중언어자에게는 일부 수어 문항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다. 이는 농인들의 경우 상징적이고 축약된 수어 표현과 복잡한 문법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농수화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반면, 국어 대응식 수화를 학습한 청인들은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Chang, 2006). 특히 K-BHS는 과거, 현재, 미래 상황을 모두 아우르는 내용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수어에서는 시간부사를 사용하거나 공간적 요소를 활용하여 시제를 표현하는 등 국어에서의 시제 표현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청인인 이중언어자에게 수어 문법에 맞추어 수정된 K-BHS-SL 문항의 시제 표현이 복잡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중급 이상의 문해력을 가진 농인 또는 청인으로서 농인 가정에서 성장하여 농수화(자연수화)를 구사하는 Children of Deaf Adult (CODA), 농인부모를 둔 청인(자녀)을 대상으로 수어판 검사와 원판검사의 일치도를 검증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최초로 수어판으로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특히 K-BHS가 우울증 및 자살 위험을 평가 위해 활용되는 검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후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인의 기본장애 유형률, 자살 위험성, 기본장애 및 자살 시도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도구의 제한으로 인해 대규모 역학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는데, 본 척도의 개발을 통해 이러한 연구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농 성인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추후 주요우울장애를 포함한 기본장애, 물질 남용,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임상 집단과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농인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치료 장면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어를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사용하는 농인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표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성비와 연령을 균형있

게 맞추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연구 결과를 농인 인구 전체로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성이 낮은 문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문항은 농인 집단에서 절망감을 측정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농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어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추후에 별도의 경험적 자료를 통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이들 문항의 삭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 국내에 농인을 대상으로 한 수어판 심리검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공존 및 변별 타당도 검증에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어판 심리검사를 통해 농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들이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 장면에서 널리 활용되는 다양한 심리 검사들이 수어판으로 개발된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도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 References

- Abela, J. R. (2002). Depressive mood reactions to failure in the achievement domain: A test of the integration of the hopelessness and self-esteem theories of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531-552.
-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 358.
- Alford, B. A., Lester, J. M., Patel, R. J., Buchanan, J. P., & Giunta, L. C. (1995). Hopelessness predicts future depressive symptoms: A prospective analysis of cognitive vulnerability and cognitive content specific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 331-339.
- Aloba, O., Olabisi, O., Ajao, O., & Aloba, T. (2017). The Beck Hopelessness Scale: Factor structure, validity, and reliability in a non-clinical sample of student nurses in South-western Nigeria.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6*, 58-65.
- Beck, A. T. (1986). Hopelessness as a predictor of eventual suicid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487*, 90-96.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3.
- Beck, A. T., Steer, R. A., Beck, J. S., & Newman, C. F. (1993). Hopelessn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clinical diagnosis of depress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 139-145.
- Beck, A. T., Steer, R. A., & Brown, G. K. (1993).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uicidal ideation in psychiatric outpati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 11-20.
- Beck, A. T., Steer, R. A., & Brown, G. K. (1996). *Beck depression inventory-II*.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Beck, A. T., Steer, R. A., & Shaw, B. F. (1984). Hopelessness in alcohol-and heroin-dependent wom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 602-606.
-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61.
- Brown, G. K., Beck, A. T., Steer, R. A., & Grisham, J. R. (2000). Risk factors for suicide in psychiatric outpatients: A 20-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371.
- Cacioppo, J. T., & Hawkley, L. C. (2009). Perceived social isolation and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3*, 447-454.
- Chang, J. (2006). Analyzing the problems of sign language following Korean language system according to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sign language.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7*, 107-125.
- Chen, C. M., Mullan, J., Su, Y. Y., Griffiths, D., Kreis, I. A., & Chiu, H. C. (2012).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disability for older adults: A population-based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 Biologic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s, gls074*.
- Cheong, E. (2002). A study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right of communication and the social inclusion of a example of sign language - Based on the discussion about its social recognition and rightnes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3*, 109-124.
- Choi, M., Lee, K., & Eom, T. (2006). Differences in empowerment and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users of the mental health service settings in Korea. *Mental Health & Social Work, 24*, 94-124.
- Clark, D. A., Beck, A. T., & Stewart, B. L. (1990). Cognitive specificity and positive-negative affectivity: Complementary or contradictory views on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148.
- Cohen, J. (1992). Statistical power analysi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 98-101.
- Desrosiers, J., Noreau, L., Rochette, A., Bravo, G., & Boutin, C. (2002). Predictors of handicap situations following post-stroke rehabilitati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4*, 774-785.
- Estrada, B., Delgado, C., & Beyebach, M. (2010). Beck Depression Inventory-II in Spanish sign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of Hispanic Psychology, 3*, 25-46.
- Gallaudet, T. H. (1997). On the natural language of signs: And its value and uses in the instruction of the deaf and dumb.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2*, 1-7.
- Gibb, B. E., Coles, M. E., & Heimberg, R. G. (2005). Differentiating symptoms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in adult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2*, 99-109.
- Hermans, D., Knoors, H., Ormel, E., & Verhoeven, L. (2007). Modeling reading vocabulary learning in deaf children in bilingual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3*, 155-174.

- Honey, A., Emerson, E., & Llewellyn, G. (2011). The mental health of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Impact of social conditions. *Social Psychiatry Epidemiology*, 46, 1-10.
- Jang, Y. Y., & Jung, H. Y. (2010).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fe of the deaf as the minority group.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 515-543.
- Jeon, J. (2010). Stud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depres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 Social Work*, 35, 51-80.
- Kang, J., Yoon, U., Park, I., & Choi, H. (2016). *Diagnosis and assignment of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70 years*. Paper presented at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Seoul, Korea.
- Kim, H. (2010).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nd prejudice experienced by the mentally ill on quality of their life.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1, 63-84.
- Kim, J., Lee, E., Hwang, S., & Hong, S. (2015a). *Korean-Back Anxiety Inventory Manual*. Daegu: Korea Psychology.
- Kim, J., Lee, E., Hwang, S., & Hong, S. (2015b). *Korean-Back Depression Inventory-II Manual*. Daegu: Korea Psychology.
- Kim, J., Lee, E., Hwang, S., & Hong, S. (2015c). *Korean-Back Hopelessness Inventory Manual*. Daegu: Korea Psychology.
- Kim, S., Lee, E., Hwang, S., Hong, S., Lee, K., & Kim, J. (2015).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eck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4, 84-90.
- Kwon, S. (1996).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nxiety: Their commonness and difference in related life events and cognitions. *Psychological Science*, 5, 13-38.
- Lenze, E. J., Roger, J. C., Martire, L. M., Mulsant, B. H., Rollman, B. L., Dew, M. A., ... Reynold, C. F. (2001). The association of late-life depression and anxiety with physical disabil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prospectus for future research. *American Journal Geriatric Psychiatry*, 9, 113-135.
- Livneh, H., Lott, S., & Antonak, R. (2004). Patterns of psychosocial adaptation to chronic illness and disability: A cluster analytic approach. *Psychology, Health & Medicine*, 9, 411-430.
- Lynch, T. R., Cheavens, J. S., Morse, J. Q., & Rosenthal, M. Z. (2004). A model predicting suicidal ideation and hopelessness in depressed older adults: The impact of emotion inhibition and affect intensity. *Aging & Mental Health*, 8, 486-497.
- Markowicz, H., & Woodward, J. (1978). Language and the maintenance of ethnic boundaries in the deaf community. *Communication and Cognition Ghent*, 11, 29-37.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2013). *A basic research to improve education skills of Korean for Korean deaf people*.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2014). *basic research on the literacy educational realities of the deaf*.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Oh, H., & Paik, E. (2003).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persons -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in the Seoul area.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3, 157-181.
- Pompili, M., Iliceto, P., Luciano, D., Innamorati, M., Serafini, G., Del Casale, A., ... Lester, D. (2011). Higher hopelessness and suicide risk predict lower self-deception among psychiatric patients and non-clinical individuals. *Rivista Di Psichiatria*, 46, 24-30.
- Rogers, K. D., Young, A., Lovell, K., Campbell, M., Scott, P. R., & Kendal, S. (2012). The British sign language versions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th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item scale, and the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8, 110-122.
- Saltz, A., & Marsh, S. (1990). Relationship between hopelessness and ultimate suicide: A replication with psychiatric out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 190-195.
- Shin E. K., Lee I. S., & Son J. Y. (2009). Research in social integration effect factor of the deaf. *Disability & Employment*, 19, 143-170.
- Singleton, J. L., & Tittle, M. D. (2000). Deaf parents and their hearing children.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5, 221-236.
- So, E. S. (2004).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feeling of burden of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 in fosteri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Namwon, Korea.
- Steed, L. (2001). Further validity and reliability evidence for Beck Hopelessness Scale scores in a nonclinical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1, 303-316.
- Traxler, C. (2000). The Stanford Achievement Test, 9th edition: National norming and performance standards for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5, 337-348.
- Turner, R. J., & Noh, S. (1988). Physical disability and depression: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 23-37.
- Wauters, L. N., Van Bon, W. H., & Tellings, A. E. (2006). Reading comprehension of Dutch deaf children. *Reading and Writing*, 19, 49-76.
- Won, S., Heo, I., Kim, M., Kim, Y., Nam, G., Bae, J., & Byeon, G. (2013).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oul: Kyo-woo.

**국문초록**

**한국수어판 백 절망척도(K-BHS-SL) 개발 및 타당화**

정다원<sup>1</sup> · 황순택<sup>1</sup> · 조혜선<sup>1</sup> · 정혜정<sup>1</sup> · 신민철<sup>1</sup> · 홍상황<sup>2</sup>

<sup>1</sup>충북대학교 심리학과, <sup>2</sup>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백 절망척도(K-BHS)를 수어판으로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한국판 백 절망척도 수어판(K-BHS-SL) 개발을 위해 K-BHS의 원문항을 한국수어의 문법 및 표현에 맞게 수정하여 수어-문자판을 제작한 후, 이를 한국수어로 번역하였고, 검사문항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었다. K-BHS-SL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만 18세 이상의 농인 240명과 수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중언어자 54명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K-BHS-SL의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K-BHS-SL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 요인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한국수어판 백 우울척도 2판(K-BDI-II-SL)과 한국수어판 백 불안척도(K-BAI-SL)를 함께 실시하고, 상관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중언어자에게 수어판 검사와 원판 검사를 모두 실시하고, 상관분석과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두 검사 결과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K-BHS-SL은 K-BDI-II-SL 및 K-BAI-SL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K-BHS-SL과 K-BHS의 일치도 또한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K-BHS-SL이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이며, K-BHS와 마찬가지로 농인의 절망감을 평가하고 자살사고를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백 절망척도, K-BHS-SL, 청각장애인, 수어판 심리검사, 척도 개발